

成績으로 卒業後 現東洋大學에 온 것이다. 兄의 學士論文은 「소크라테스研究—自覺과自由」라고 하며 友사이 에 兄은 下宿을 차지하기가 바쁘게 論文抄稿을 憑藉하고 圖書館으로 逃忙을 한다. 兄의 趣味는 庭球와 蹴球인데 現東洋大學庭球部에 主將이 시라고!

兄은 키가 육사구나 되는 데다가 좀 동소한 便이고 頭髮은 소크라테스 研究의 過勞하심인지 昨今日이 다들 만콤 영성드듯하게 보인다. 兄의 豊富한 經驗과 獨特한 創造로 불어오는 犀利奔放한 論策은 將來 通度寺住持大和尚의 椅子가 기다리는 듯이 도生覺된다.

兄이 가진바 革命家的性格은 吾人의 恒常尊敬하는 바이거니와 兄이 中央佛專在學時에는 當時新思潮의 衝激을 받더 破竹之勢로 發展蜂起되는 靑總主要幹部의 一人으로서 朝鮮佛敎靑年運動界에 猛將이였음은 自他가 共히 認定하는 바이다. 兄은 다시 江戶에서 우리會가 創立되매 文敎部幹事로 就任하여 病床에 呻吟하든 金剛杵二十二號를 續刊하여 우리敎界로 보내였으니 兄의 印刷所往來가 六十餘回라 그功의 大小는 讀者의 判斷을 바랄 분이

다.

그後 다시 兄은 總務部幹事의 重任을 지고 會務發展에 盡力하였다. 兄의 卒業後抱負는 本寺大德의 指示를 받더 同人과 握手하여 現講院을 革新하여 完全無缺한 宗立中學을 建設하겠다고 한다. 朝鮮의 現實形便이 그러하거니와 우리敎界의 靑少年學徒들이 中等敎育을 外地에 나와서 받지 안으면 안되는 이때에 急先務中 또한 急先務일 것이다.

敎界現實이 切實히 要求하고 있음에 不拘하고 曰經營難 或은 그의 效果를 云謂하여 內容에 있어서나 位置에 있어서 中央佛專과 不可分離할 普成高普經營을 自進拋棄한 敎界에 迷步은 언제나 꺼치러 노? 兄의 抱負가 中等敎育機關建設에 있는 以上 이제는 남에 손에 드러간 普成高普生覺이 얼마나 懇切하랴.

兄의 理想이 實現되기를 衷心으로 渴望하며 또 호도 兄의 健康을 비어마지안는다.

昭和十三年(佛紀二九六五年)十一月 日

「끝」

業

鏡

臺

編輯室

◇業鏡을 닦으니 愚昧한 人間 엇스니 正義를 지고 佛法을 探求 들아! 솔내 避하지 마라라 부질 하는 佛弟子를 엇지 두려워하지 업슨 것이다. 無私公正한 業鏡이 안으랴. 슬푸다! 無間地獄에 더 니 야속타 마라라. 恥羞心 恐怖 러질 팔이!!

願하여 보와라. 咄哀哉!! 菽麥을 不辨하고 盲從하는 校友여! 君等의 前途가 可惜하다. ◇動機야 不問하고 敎界에 新面目을 세우고 저하는 當初에 업 청난 橫領事件이 爆發하였다고. 韓, 李兩君이여! 私腹을 채우 기爲한 兩部長留任運動術策이 더 옥 怪惡타. 于先 七千痛棒을 나리니 甘受하고 護法神將의 鐵槌를 기다려라.

◇正義를 背反하는 者에 엇지 鐵槌나 리지 안으랴. 복지워 올니 올은 正道를 밝기를 勸함이 어늘 先天의 正으로 卽부터 진마음 改過의 餘居修行이 如何? 地 가 있으랴. 故로 自稱 鳴鼓山人 ◇母校를 爲하야 奮發하는 것은 이것이 世稱 沒恥羞 鐵面皮 漢! 可賞! 그러나 그手段이 엇 此漢이 日本留學生 廢止를 主張한 지그리 劣劣한가? 正義를 일 다고. 그것도 怪異치 안어! 釋尊 은 勇氣의 所有者는 悖者!! 巴公園에서 寫眞機부시던 일을 回

◇한참 靑年에 老靑年李×在 老靑年金尙×타 尊敬받든 和尙이 어! 昔日의 主人公에 對하기에 부그럽지 안는가? 壬戌年에 姜大運 鳴鼓事件의 主謀者가 그대 당신은 誰某에게 當하리오? 咄! 前功이 可惜!! 黃部長은 卑怯하게 마라손은 워하였소. 남이 부그럽소. ◇通度寺 山谷에는 住持爭奪

戰의 暗雲이 低下하여 暴風雨  
를豫想더니 雲捲되어 一輪明月  
이 照天心이라고。法城의 醜惡  
稍을憂慮하시는 舊住持諸和尚님  
의 公正한 論衡 自身의 名譽를  
버리고 讓步하신 辛氏의 勇斷 大  
衆의 形式的 選舉 이얼마나 부러  
운가!! 佛子여 本바들지어다。  
여기에 平和가 成立되고 敎界의  
進展이 잇을것이다。

◇寺院內의 紛爭은 南北이 相應  
하야(江原咸鏡慶南全南某々本山)  
蜂起하니 此所謂 朝鮮佛敎界의  
新思潮인가? 寺院을爲하고 三  
寶를爲한 極情의 發露라면 一杯  
酒들이 慶賀하겠다면은 住持爭  
奪、權利다툼의 阿修羅戰爭이니  
懲戒의 一棒을 앗길수있다。名利  
에 눈이 두운者들이여 客塵煩惱를  
洗滌하고 正思惟 正精進하라。

◇起草委員諸德의 再考를바엔

無間地獄으로 押送하기前에 할  
을밧고 五臺山에 드러가서 念  
佛懺罪하소。

◇新輯「佛敎」誌는 그대로 卽  
순히刊行中이나 最近刊에 이르러  
사록 體重이 衰弱하여지니 毋論  
營養不良으로써 이리라고 掛  
酌된다! 或은 不時에 腦貧血  
症이 併發되지만 實을가해서 實  
相念慮되는바이다!

◇已往말하게되는바에는「佛  
敎」誌「敎界消息」欄에「敎務院消  
息」이라해서 그記事內容인즉 그  
만해도 매우 忠實한편이나 特  
히 李鍾郁大敎師의 食事、如廁  
의記事가 漏記되었고 또 數次  
韓性勳氏內患으로 欠勤이라는名  
文에는 그內患이 內妻해서 御  
病患이시라는말인가? 內心이 甚  
히 憂患이였다는말인가? 添  
記치않이하얏스며 또 더구나 李

다。法은 人間의 손으로 아무러  
케나 產出하되 一旦出生한以上  
에는 그法이 存續하는때까지 逆  
으로 그影嚮下에 人間의 精神을  
左右하는것이다。千五百年이라는  
長久한 歷史에 多大한 犧牲을 支  
拂하고 無價의 寶物을埋藏하여둔  
偉大한 實驗室을 다시차지라。

◇金X君아!! 너스사로살피아느  
냐 友情의 信義를받고 母校의  
名譽를잡았고도 그남아不足해서  
너가지은 業까지隱匿하야 業  
鏡子까지 欺瞞하라는것이냐!  
이可憐한 愚昧한大膽한 人間  
아! 監務는 무슨監務며 講師  
는 무슨講師냐 재발말이라말어  
누전을 亡할作定이며 누구를죽  
일心思냐 그대도 學士號가부럽  
고 殘命의存續이그렇게든 發作  
의根元을 火葬으로써 懺悔하라  
늦지도안타 慈尊의 눈물은 아즉

서방等來訪이시라는記事는 何?  
揭載치않였는지! 消息의 全般에  
亘하야 編輯室에 一言의 質責  
이 없을수없는리이다。

◇青總乙 復興復興하니 講鏡  
세부흥우는생이로군! 京城同盟  
의再起! 黃昏에「부흥」음을울듯  
게되나 밤지낼일이 暗闇하다。  
諸子는 自重自愛하야 本來面目  
을 把握하여 精進하소。

◇怪紙「佛敎時報」그記事의種  
々相은 卑劣者의呼訴뿐이오 奸  
邪의 妖哭聲만이다。大隱은毛隱이  
오 素荷는笑何? 이냐。主幹者自  
己宣傳의 商業用具이라하니 原  
稿料厚한말에 投稿者如前한것도  
噫! 敎界의 一面相이로다。  
◇近來 朝鮮佛敎界에서는 日  
本(內地)佛敎視察이流行인듯십다  
봄에는 江原三本산, 가을에는  
慶北佛敎協會。 甯건엔 寺院에가

마르지안으셨다。그러나 너의罪  
狀이 業鏡子欺瞞한 所爲만이안  
니고 三寶를冒瀆한 大波羅夷罪  
에該當한줄로알어라 當場에 處  
斷도할것이로되 前釋이可惜해서  
아즉은 未決에回付하여둔다。그  
리고 天眼, 神眼의二使을 尾行  
에付하여둔다。

◇修身學院에 大量派遣乎。直後  
의敎務院 欠員椅子를엿보고 垂  
涎三尺의兩金이 前後하야登場  
한本寺두사람이 同院에서 理事  
와部員으로 坐定하기가 못되려  
라해서 너가 그만두라는둥 내  
가있어야겠다는둥 허둥지둥...  
兩命은 爾今에安坐耶 그러나自  
己反省없으면 自滅있을뿐。  
◇모시모시光頭! 氏의正體가  
鬼法한怪物인것을 君自身이 自  
任하고나스니 敎役者할은쓰고 狡  
易子노릇한지 임이 멧해이로!

서는 靈壇位牌求景、市街에서는  
「네은싸인」의弊嚮、「대과」트」에  
서는 物品貿易等々이 要務처럼  
보였스며 또 甚해서「우리의朝  
鮮佛敎는 아즉도 멀었습니다」

「布敎方法을 배우러왔습시다」  
란말을 常茶飯으로 내노셨다한  
다。率直! 도매를찾아야 할것  
이안일까? 視察이란 求景見習  
또는 揚我家醜가안인것을 먼저  
認識하소 咄!

業鏡을다글에마다 醜惡狀은느  
러가고 美譽之狀은 주러드니 此  
所謂 季法萬年一魔強法弱의 如  
實相인가? 佛敎大衆이여! 反  
省(奮起)하야 이즈러지는  
法城을바로차브라